Entertainment p/18

박보영·정재영, 기자된다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제3146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이정협 포상휴가 간다

쓸개 떼내고 軍면제

세습 재벌 문제없나 ◆ 병역 - 현대차그룹 관련기사 p/9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역 이미지 벗은 '피노키오' 박신혜 p/17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

SK하이닉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성관계 폭로"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오피스텔 1억에 3채? 과장광고 활개

한국, 호주 득점 핵 '루옹고' 막아라

대학가에 붙은 원룸 전단 3월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에 방 구하기가 한창이다. 28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외벽에 원룸·하숙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원룸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세보증금으로 평균 1400만원을 내고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매달 대략 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朴 지지율 20%대… 레임덕?

일각 "제2의 6·29선언 나와야 한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정치·여론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지율 30%를 국정운영 동력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이라는 평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일간집계(95% 신뢰 수준에 ±3.1% 오차)에 따르면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7%를 나타냈다. 이는 직전 일간집계 지지도 30.1%보다 0.4%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 역시 0.6%p 높아진 62.6%를 기록하면서 또 다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닥세에서 간신히 회복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9.6%. 박 대통령과 제1야당의 지지율이 같은 수준이 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50%대를 유지했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연말에 40%대로 급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30%대로 내려앉았다. '13월의 세금폭탄'에 '1·23 불통 인사'가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 가능성도 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에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한탄까지 나왔다. 한정애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현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문고리 3인방' 경질 등 인적쇄신 단행과 전면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내정하고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직접 사과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987년 6·29선언과 같은 수준의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3년간의 재임기간 동안에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행의 연속일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지난 2년간 지지율 등락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취임 후 첫 20%대 지지율 소식을 접하고는 분위기가 일변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 청와대 입장이 있나'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이제 통일도 '교육하는' 시대

이제는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일선 학교에서 교과 외 통일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통일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새 학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나 도덕 등 정규 교과시간에 이뤄지는 통일교육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6시간 이상, 또 통일교육주간(5월 마지막 주)에 계기수업 2시간 이상 등 총 8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조사에서 통일교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5시간 이하였다.

정부가 통일교육 확대에 나선 것은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53.5%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통일준비의 시작"이라고 했다.

통일교육은 정권의 대북기조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0년대의 철저한 반공교육에서 시작된 통일교육은 1980년대 안보교육으로 이어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유승민·원유철 vs 이주영·홍문종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28일 확정됐다.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유승민(왼쪽부터)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원유철 의원을 선택했다. 유의원에 맞서는 이주영 의원은 홍문종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택했다.

김정은 5월 방러 공식확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릴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는 28일(현지시각) 보도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일·북한 중 누가 참여하는냐에 따라 국제정치적 역학구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날 "약 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으며 북한 지도자도 그 중 한 명"이라며 김 제1비서의 참석을 공식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전기념행사에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승전 60주년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70주년인 올해는 급변한 국제정세로 인해 윤곽이 아직 흐릿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색된 미·러관계로 인해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참가가 유력해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최우방인 미국이 불참한 상황에서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 러시아의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는 게 외교적으로 좋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제1비서가 참석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마련해준 마당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남·북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정윤아기자

대통령 국정운영 문제점 물었더니…

유승민 "정책·인사·소통 모두 국민 기대이하"

"지난 2년 동안 정책·인사·소통 세 가지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탈박(탈박근혜) 유승민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세 가지를 참 중요하게 봤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정말 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임기가 아직 3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국민들 평가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신뢰도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냐"면서도 "국민들께서 매기시는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30%선이 붕괴됐다.

유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 논란이 일자 3인방을 두고 "얼라들이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비서진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배포됐다 취소된 일을 두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혈세가 아깝다"… 일 안하는 정부

'직무유기' 복지부, 아동학대 재탕 대책 보육기관·보육교사의 질적 하락 조장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일 안하면서 월급은 챙기고 국민혈세는 아까운 줄 모르는 공무원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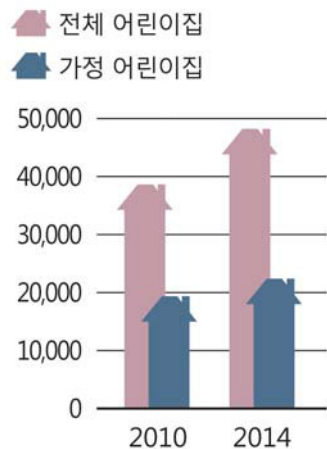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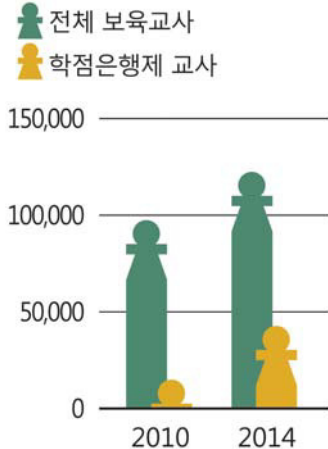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육료 지원사업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어린이집 3만8000여곳 중 가정어린이집이 1만9300여곳으로 5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전체 4만3700여곳 중 2만3300여곳으로 53%를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만큼 관리상 허점이 많아 현장에서는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2010년 전체 보육교사 9만7000여명 중 학점은행제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1만6000여명, 2014년에는 전체 12만8500여명 중 4만11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정부를 향해 혈세가 들어가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만 골몰했을 뿐 '직무유기'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의 질적 하락을 앞서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한다.

복지부는 2013년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에서 표현만 살짝 바꾼 '재탕' 대책을 내놨다. 처벌강화나 부모의 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들이다. 정부가 관련 부처 장관 협의까지 거쳐 마련했다는 방안들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2년전 대책 마련을 위해 5000만원 가까이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제시장' 관람 위해 영화관 찾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기에 앞서 영화관계자·배우들과의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야 "이완구, 80년 신군부서 뭐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완구(사진)국무총리 후보자의 1980년 신군부 참여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국민은 '총리 각하'의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 시절을 알고 싶어 한다"며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국보위의 주요 내무분과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 보국훈장 광복장까지 받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세 번이나 부르는 장면을 보고 이 후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시대감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시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보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18 직후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다.

이 후보자는 1974년 1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국보위 참여를 전후해서 경제기획원 사무관과 홍성경찰서장을 지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에는 정작 1980년 경력이 나와 있지 않다.

/송병형기자

여야, '증세 논란' 정부 협공

여 "증세가 전가의 보도냐"… 야 "지방 쥐어짜지 말고 법인세 손봐라"

연말정산 환급액을 토해내는 등 세수 부족을 자초한 정부가 무더기 증세를 모색하다 '사면초가'에 처했다.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자동차세·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김부선 아파트' 닮은꼴 5만5000여 가구

배우 김부선씨가 살던 아파트와 같이 겨울철 난방비가 '0원'을 기록한 아파트 가구가 전국적으로 5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48만 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조사기간 중 한 달이라도 난방비 '0원'을 기록한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중 0.74%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기장판 사용 등으로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64.2%인 3만5432 가구, 미입주 등 빈 아파트는 16.4%인 9038 가구, 집수리 등 기타가 3.7%인 2029 가구, 출장이나 여행 등 부재의 경우가 3.2%인 1760 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으로 '0원'이 나온 6904(12.5%) 가구다. 일부는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했거나 고장난 계량기를 일부러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경기 2 가구와 충남 9 가구에서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8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 가구에 대해서는 소송 대신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한 상태다.

/송병형기자

피닉스로 몰려든 고급 자가용 비행기 다음달 2일(현지시간) 피닉스대학교 스타디움의 2014-2015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49회 슈퍼볼), 오는 30일 미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오픈 개막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에 고급 자가용 비행기들이 몰려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애플 '팀 쿡의 마법' 통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직원 만족도도 최고

"이젠 '팀 쿡의 애플'로 불릴 만하다."

전 세계 IT업계가 대화면 아이폰6를 앞세운 '팀 쿡의 마법'에 넋을 놓고 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 없이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려 팀 쿡(사진) 최고경영자(CE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7일 끝난 회계연도 1분기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450만 대로 나타났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다. 증권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이었던 6490만 대보다도 훨씬 높다.

이같은 실적 호조는 팀 쿡 체제 출범이후 공을 들여왔던 중국시장에서 매출이 급신장한 덕분이다. 애플은 같은 분기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161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자그마치 69.9% 늘어난 수치다. 중국 시장점유율에서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분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당 순이익은 3.06 달러, 매출액은 746억 달러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순익은 37%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애플의 실적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팀 쿡 CEO가 준비해온 비장의 신무기인 '애플 와치'가 오는 4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팀 쿡 CEO는 이날 전화회의에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애플 와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창의성과 소프트웨어 혁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 애플 와치 4월 출시 예정

애플 직원들도 팀 쿡 체제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스위스 금융그룹 UBS이 전세계 IT 분야의 주요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애플이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애플 직원들은 회사의 전망, 문화, 가치, 경영 등은 물론 팀 쿡 CEO에 대해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애플인사이더는 "잡스의 철학을 거스르면서 화면 크기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팀 쿡의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며 "창업자 잡스를 그리워하던 직원들도 이젠 팀 쿡 CEO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국제 환거래 기록적 증가

통화 정책 불안감 증폭

선진국 통화 기조가 엇갈리면서 국제 환거래 규모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집계에 따르면 북미의 환거래는 지난해 10월 현재 하루 평균 1조1000억 달러로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8111억 달러와 2013년 10월의 8163억 달러를 모두 초과한 수준이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집계에서도 영국의 환거래가 지난해 10월 하루 평균 기록적 수준인 2조7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일본도 환거래가 지난해 10월 3732억 달러로 최근 2년에 비해 증가 추이를 보였다.

싱가포르의 환거래도 지난해 10월 하루 3195억 달러로 지난해 4월의 2905억 달러와 한해 전의 2822억 달러를 모두 웃돌았다.

이같은 현상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상이해지자 시장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환시장이 계속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다. /장윤희기자

'아우슈비츠' 잊지 않으리 홀로코스트(나치 유대인 대학살) 상징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인 27일(현지시간) 폴란드 오시비엥침 현장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3번째) 등이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300명도 이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세계 지도자들과 당시 이곳 110만명 등 나치 치하에서 600만명의 유대인이 희생된 역사의 비극을 되새겼다. /AP 연합뉴스

도로 한 가운데 건물이…

metro HongKong

중국판 '알박기' 너무하네

최근 원형 도로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주택이 중국 광저우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트로 홍콩은 18일 공식 개통한 광저우 저우터우쥐(洲頭咀) 도로가 매우 기묘한 형태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형인 훙더(洪德)인터체인지 가운데에 8층 빌라와 1층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 도로를 운전하는 차량들은 건물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저우 시 관계자는 "대부분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했는데 세가구가 끝까지 이주를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이다. 특히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은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차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 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리=이국명기자

첩첩산중 IS… 리비아 호텔 습격·인질 추가 살해 경고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IS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이 이날 오전 10시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소재 코린시아 호텔을 습격했다. 폭탄 공격을 받은 코린시아 호텔은 외국 외교관과 사업가, 리비아 정부 관리들이 주로 머무는 리비아 내 최고급 호텔이다.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된 괴한은 폭탄 공격을 자행하고 호텔 내에서 인질극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망자는 리비아 경비원 등을 포함해 9명이며 부상자도 5명 발생했다. 당국은 추가 사상자를 파악 중이다.

한편 같은날 IS는 요르단에 수감 중인 여성 테러리스트 사지다 알 리샤위를 24시간내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인과 요르단인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경고했다.

IS는 유튜브 계정에 '고토 겐지가 가족과 일본 정부에 보내는 두번째 공개 메시지'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1분50초짜리 영어 음성 파일을 게시했다. 음성 파일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남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가 지난달 전투기 추락으로 IS에 잡힌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로 보이는 작은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알 리샤위는 이라크 출신 테러리스트로 2005년 일으킨 폭탄 테러 혐의로 이듬해 요르단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다. 지난 25일 IS는 일본인 인질 두명 중 유카와 하루나를 살해한 후 "남은 인질인 겐지를 살리고 싶으면 알 리샤위를 석방하라"고 밝히며 몸값 요구를 철회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 정부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으로 인질 사태 대응을 위해 요르단에 외교 각료를 급파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은행혁신성 평가 신한·부산 1위

씨티·SC은행 '낙제점'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가장 혁신을 많이 한 은행으로 꼽혔다. 반면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금융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우수 은행에 온렌딩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 성과급에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2015년도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과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은행 혁신성 평가'는 은행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금융 확산(40점)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평가 결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18개 은행 가운데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를 기록하며 종합평가에서 82.65점을 획득했다.

이어 우리은행(76.80점), 하나(72.70점), 외환(66점), 농협(63.60점), 국민 (59.40점), SC은행(49.20점), 씨티 (44.50점) 순이다.

지방은행에서는 부산(79.20점)·대구은행(76.70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남(70.45점)과 광주(61.15점), 전북(59.00점), 수협(52.00점), 제주은행(45.00점)이 뒤를 이었다.

혁신성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게 나왔다.

실제 총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하나은행이 31.3%로 가장 낮은 반면 일반은행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씨티은행(8위)은 48.4%로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는 신한·우리·부산·경남·대구은행이 '기술금융 확산 분야(TECH)'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창업·신규거래기업 지원 비중은 농협(2위)은행이 크게 차지했으며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등 신용지원 비중은 외환(1위)과 하나(2위)은행이 강세를 나타냈다.

지방은행 중 1위를 차지한 부산은행은 공급규모(2위)와 기업지원(1위), 신용지원(1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투·융자 복합금융을 늘리고 관행을 바꾸며,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보수적인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분야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1~3위를 차지했다.

지방은행은 부산·대구은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광주은행 등도 세부항목에서 상위권으로 나왔다.

서민금융과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에서는 농협과 외환, 제주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외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의 취급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온렌딩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결과를 임직원 성과 평가와 연동시켜 내년부터 성과급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축의날은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해 금융권 변혁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1961.58 (+9.18)

코스닥 594.39 (+6.55)

금리(국고채 3년) 2.00 (-0.03)

환율(원·달러) 1082.90 (+4.90)

파생결합상품 6종 공모 유안타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ELB 1종과 DLS 1종, ELS 4종을 총 362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ELB 34호'는 CSI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유안타증권 제공

외환은행, 평창 올림픽 '드림프로그램' 후원 외환은행은 28일 성공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2015 드림프로그램'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도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공약 중 하나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눈(雪)이 내리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을 초청해 스키 등 동계 스포츠와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42개국, 171명의 청소년과 코치가 참가, 내달 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열린다. /외환은행 제공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자금 지원없을 것"

산업은행 '2015년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제' 발표

KDB산업은행이 올해 동부하이텍 재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3월까지 현대증권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KDB대우증권과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는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산업은행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민간 참여가 어려운 영역에서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모험가)의 역할을 더욱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창업벤처 기업에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모험자본을 지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창조경제 지원 ▲시장안전판 기능 강화 ▲금융선진화 선도 ▲통일시대 준비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 확충을 5대 중장기 전략으로 선정하고 올해 6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전년도 목표액인 55조9000억원보다 12.7% 늘어난 것.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4%)인 34조9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쏟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5G이동통신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는 36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체 자금공급액의 16.7%인 10조5000억원을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활용키로 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 중에 있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에 대해선 "금호산업은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 매각(M&A)을 진행 중에 있다"며 "1월 말 경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호타이어는 기업 가치 제고 지원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주식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삼구 회장 등 인수자에) 인수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대형손보사·코리안리 재보험요율 갈등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이 자체 재보험 요율 마련에 나서면서 코리안리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대해상은 지난 19일 재보험 자체요율 산정시스템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검토를 진행해온 현대해상은 TF팀을 통해 자체 재보험 협의요율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체요율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이를 구축하면 동부화재를 비롯한 대형사 의 자체 시스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 협의요율이란 손보사가 기업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재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재보험요율을 말한다.

기존에는 손보업체가 자체적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따라서 보험중개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코리안리의 협의요율을 그대로 받아썼다.

문제는 국내 재보험사가 코리안리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코리안리의 국내 점유율은 65% 가량이다. 뮌헨·스위스·스코르재보험, 동경해상보험 등 해외 재보험사들이 있지만 이들은 국내에서 지점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코리안리가 높은 협의요율을 강요해도 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업계 관계자는 "항공, 선박 등의 보험은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크다보니 자체적인 요율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코리안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을 비싼 값에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도 손보사의 자체 요율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국회와 협력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손보사의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재보험사의 요율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업체별 자체 요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보험사도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재보험 본질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협의요율은 해외 재보험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타 재보험사와의 영업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강제로 손보사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손보사가 자체요율을 사용하거나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손보사에게 자사의 협의요율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일축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저금리 시대, ELS 다시 보자!

중위험·중수익 관심…작년 발행규모 70조 '사상 최대'

저금리시대, 주가연계증권(ELS)이 대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LS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가가 범위를 벗어나 폭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고,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묻어두던 자산을 ELS에 투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LS의 발행 규모가 7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ELS 발행액은 71조7967억원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45조7158억원과 비교하면 57.1% 늘었다. 지난해 12월 ELS 발행액도 10조2317억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 발행액은 지난 2008년 11월(959억원) 1000억원을 밑돌았지만, 6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이 너무 많아 시장 과열 경쟁이나 혼탁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지만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ELS 발행 규모 가운데 공모형 원금비보장형 ELS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공모형 ELS 가운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투자 비중은 37.7%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증가도 지난해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ELS 상품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최대 11.01% 수익을 추구하는 ELB(파생결합사채)와 ELS 2종을 판매한다.

'키움증권 ELS 484호'의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현대차 보통주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최고 42.20%(연 수익률 13.40%)의 수익을 지급하고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 상환기회가 주어진다. 조기 상환 평가일에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90%(6개월, 1년, 1년 6개월), 85%(2년, 2년 6개월, 3년) 이상인 경우 최고 42.20%(연 수익률 13.40%)로 상환된다. 손실가능조건(녹인)은 60%다.

신한금융투자도 다양한 수익구조를 지닌 ELS 등 12종의 상품을 오는 30일까지 판매한다. 이 중 'ELS10184호'는 첫 조기상환 베리어를 최초 기준가격의 80%대로 낮춰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은 '첫스텝80 시리즈 ELS'다.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이며 3년만기 상품이다.

이밖에 KB투자증권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원금비보장형 ELS 1종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일시보관 중 카드 분실, 책임부담 없어

카드 분실시 회원 책임부담률 완화

오는 3월부터 가족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이에 따른 책임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의 카드 도난사고 관련 책임부담도 반으로 줄어든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업무 체계가 미흡하고, 책임 부담과 보상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해야 한다.

또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카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100%의 책임부담률을 50%정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일시 보관한 사유에 대한 50%(평균) 책임부담은 0%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 부담률이 주어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도 감소돼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회원 책임부담률은 35%(평균)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단 카드의 대여나 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감소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지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하다 지난해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은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8.3% 내려간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33.1%에서 35.1%로 2%p 늘어났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ING생명, 홀트일산복지타운에 6700만원 기부 ING생명은 지난해 임직원 급여끝전기부 프로그램으로 모인 6700만원을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금은 매월 임직원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끝전이나 일정금액의 기부로 만들어졌다. 회사는 이 기금과 동일한 액수를 '매칭그랜트'로 지원하고 있다. 위관영양을 받고 있는 영훈이(오른쪽)와 말리 홀트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ING생명 제공

기관, 레버리지 ETF 사자 행진

7거래일 연속…인버스 ETF 순매도

최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동향을 볼 때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지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코스피 1900선이 붕괴하면서 기관이 대거 코스피 하락을 노린 투자로 몰렸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7거래일간 기관은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에 대해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이 기간 기관이 사들인 레버리지 ETF는 6517억7000만원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순매도를 지속해 6248억80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매수·매도를 거듭하다 17억6800만원 매소 우위를 기록했다.

레버리지 ETF는 추적지수 변동폭의 1.5~2배가량을 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주로 선호한다.

게다가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의 투자 수요도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 기관이 상승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9일 인버스 ETF에 대해 순매도로 돌아선 기관은 21일 하루를 제외하면 27일까지 순매도세를 지속했다.

기관은 이 기간 총 1억7500만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은 대체로 '사자'세를 보이며 767만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은 21일 하루를 제외하곤 매수 우위를 보이며 총 1억6800만원을 사들였다.

다음달부터 차츰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리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주고 받는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올 들어 처음으로 '사자'세로 돌아섰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외국인이 237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주간 단위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주 이상 연속 순매도세를 지속한 경우는 지난 2012년 이후 4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팔자'세의 단기적인 클라이막스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달러 강세 현상이 완화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츰 현물시장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100%
천연암반수
HAPPY WATER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창조금융'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올 한해 경제 혁신 실현 방안으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발맞춰 주요 은행들도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한편 관련 상품을 마련하는 등 창조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조금융 활성화…'순항의 닻' 올렸다

은퇴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 박차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대한민국 리딩뱅크를 넘어 은퇴시장, 창조·기술금융, 글로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시장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진출 국가에서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자산성장률 15.7%를 기록해 지난 2010년 2.9%에 불과했던 해외수익비중도 지난해 11월 기준 8.34%까지 성장했다.

해외진출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지원 DESK'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해외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장조사 단계부터 진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 중국·베트남·캄보디아·카자흐스탄·인도 등 5개국에서 64개의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술금융에서도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기술금융 중장기 로드맵을 활용,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신설, 총 1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기업여신심사부 내에도 23명의 기술전담심사역을 지정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술력 우수업체의 여신심사 시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최근에는 영업점에 기술금융 전담 관계관리자(RM)를 지정해 기술력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심사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시장에서의 '창조적 자산운용'도 활성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결성한 '시니어론펀드'와 '일본태양광펀드'의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펀드의 성공적인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신한은행은 26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에서 201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00여명의 부서장들이 올해 경영환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은퇴시장에도 진출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신한미래설계' 브랜드를 론칭해 은퇴투자 전용상품 출시하고 미래설계캠프 개최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은퇴설계新시스템', 'S-미래설계'를 오픈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조2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수익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실시된 5개의 대외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두 단독 1위를 기록해 은행권 최초로 고객만족 전관왕을 달성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스마트폰·전자지갑' 통해 모바일 결제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국내 첫 스마트폰 뱅킹인 '하나N Bank(뱅크)'와 원조 전자지갑을 내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핀테크(Fintech·금융 기술)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 금융 시장을 둘러싼 비·금융권 간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한 단계 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하나N Bank'에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마이 스토리'와 NFC 고객인지서비스인 'Touch Me' 등이 포함된다.

은행 내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선 하나·외환은행직원이 직접 찾아가 금융상담과 거래를 하는 '테블릿 브랜치'서비스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시장에서의 금융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자지갑 서비스인 '하나N Wallet(월렛)'에 자동충전 기능과 P2P 소액송금 등을 도입했다. 또 하나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전용 선불충전카드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전자지갑으로서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하나카드는 플라스틱카드 없이도 일반가맹점에 설치된 NFC결제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를 내놨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모바일카드'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은 전국 약 3만여점이나 있다"며 "최근 화두인 핀테크(Fin-Tech)의 초기 모델인 모바일카드 분야 선도 카드사로서 모바일결제의 오프라인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은 기업 고객을 위한 '모바일 자금관리서비스'와 '모바일 통장' 등도 출시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스마트금융 등 고객과 만나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각각의 채널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며 "핀테크(Fintech)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서비스·새자금운용방식 등 교합 전략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따뜻한 금융'을 토대로 한 발전적인 창조금융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 ▲서비스 ▲새로운 자금 운용 방식 등을 교합한 '트라이앵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룹 각 계열사들도 창조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 및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산운용과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술금융을 바탕으로 창조금융을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금융역량 기반마련 ▲인프라 구축 ▲기술금융 로드맵을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산업기술평가팀 10명과 기술전담심사역 24명 등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인수금융펀드인 '신한시니어론펀드'을 조성해 대체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드 9(Code 9)' 출시가 대표적인 예다.

이 상품은 남녀 각각 9개 코드를 도출해 직장, 사회생활과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 욕구가 높은 젊은 세대를 위한 '23.5°'와 계획·합리적 소비 비중이 높은 실용적 직장인들을 위한 'S-Line'체크카드 등이 있다. 지난 5월 런칭 후 5개월 만에 100만매 이상이 발매됐다.

신한카드는 또 공공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력해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에 회사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태평로2가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2015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생명은 차별적인 은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미래설계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은퇴 전에는 사망위험을 집중 보장하고,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10년간 가입금액의 5%를 매년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기존 주식, 채권에 제한됐던 투자 대상을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대체투자 등으로 확대해 투자자산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2년 연속 다우존스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에 편입됐다. 2년 연속 편입은 국내 금융그룹 중 최초다.

DJSI는 지난 1999년 세계 최대 금융정보제공기관인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다우존스와 스위스 샘(SAM)사가 공동개발한 주가지수 중 하나다.

/김형석기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담낭절제로 병역면제

전문의 "쓸개 떼내도 생활 큰 지장 없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장남이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차남의 병역 면제가 인사청문 주요 검증 대상에 오른 상태다.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르는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한국사회에선 정반대다.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커녕 '사회고위층=병역면제'라는 공식이 고위층의 필요충분조건처럼 자리 잡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회장의 뒤를 이어 3세 경영 체제를 다지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담낭 절제술을 받아 특이 병력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육군 상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정 부회장이 병역 면제를 받을 당시 '국방부령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담낭절제술' 판정을 받으려면 개복을 통한 담낭 절제술을 받거나 내시경 수술을 받으면 된다.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돼 담낭절제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기는 불가능하다. 국방부령 159 가항에 따르면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 포함) 3급은 현역입영대상이다. 1989년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는 면제대상이었다.

병무청 병역자원국 관계자는 "국방부령이 수시로 바뀌었다. 통상은 2년 주기로 바뀌는데 1995년은 4년만에 바뀌었다. 국방부령에 따라 면제든 현역이든 결정되는데 연간 군대입영 대상자들의 수에 따라 불규칙하게 바뀌어서 그렇다"고 법령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면제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범법자를 잡으려고 특별사법경찰을 만들어 불법사이트나 면제 정보를 공유한 사람 등은 처벌을 한다"며 "심지어 무정자증 등 별의별 항목을 다 이용해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면제 등 기준을 세우는 국방부령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역조사 발본색원 차원에서 국방부령을 악용하는 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년 40만~50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사하다보니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한 종합병원 외과 전문의는 "보통 담석으로 발생하는 담낭염 등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지만 무증상도 있어 모든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또 담낭절제술 이후에도 간에서는 같은 양의 담즙이 계속 생산되고 십이지장 등이 조정자 역할을 대신해 특별한 이상은 없다. 다만 설사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곧 정상으로 돌아올 뿐이다. 즉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큰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췌담도(췌장·담낭·담도)를 전문으로 개원한 전문의 역시 "담낭을 제거해도 소화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수술 후 별도의 약을 먹거나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다. 이런 이유로 있거나 없거나 생활하는데 큰 상관이 없으며 이전과 달리 군대 등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여름 시장 잡아라… LG전자 '휘센 듀얼 에어컨' 생산

LG전자가 올 여름 에어컨 시장 공략 제품으로 선보인 '휘센 듀얼 에어컨' 신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소재 창원공장에서 이번 주부터 '휘센 듀얼 에어컨' 신제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듀얼'(Dual 이중이라는 뜻)을 콘셉트로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전자가 효율과 스마트기능을 앞세운 '스마트에어컨 Q9000'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LG전자 대표 에어컨 제품인 '휘센 듀얼 에어컨'은 제품 전면 상단에 탑재한 두 개의 냉기 토출구를 각각 제어할 수 있다. 양쪽 냉기 토출구로부터 나오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각각 조절해 듀얼 맞춤 냉방, 듀얼 절전 냉방, 듀얼 파워 냉방 등의 기능이 지원된다.

LG전자는 이달 16일부터 3월 말까지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휘센 듀얼 에어컨과 알프스 공기청정기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의 캐쉬백과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 휘센 브랜드 15주년을 기념해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명에게 휘센 듀얼 에어컨을 증정한다.

LG전자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콘셉트의 '휘센 듀얼 에어컨' 신제품 생산을 이번주부터 시작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냄새 등을 감지하는 PM10 센서, PM2.5 센서, 가스 센서 등 트리플 청정센서를 탑재한 '스마트에어컨 Q9000'의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에쓰오일, 도라에몽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에쓰오일은 2월 15일까지 자사 캐릭터 '구도일'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라에몽'의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을 진행한다.

사측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두꺼비주유소를 이들 캐릭터로 꾸미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해당 주유소 방문고객에게는 매주 수·토요일에 열쇠고리과 영화관람권, 저금통 등을 증정한다.

또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s-oilbonus.com)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응모한 고객 중 150쌍을 2월 9일 추첨해 도라에몽 영화 예매권을 제공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두꺼비주유소가 구도일·도라에몽 주유소로 변신했다.

2월 2일부터는 수도권 100개 주유소에서 구도일과 도라에몽이 그려진 주차알림판을 선물한다.

지난해 에쓰오일은 국내 캐릭터인 뿌까, 캐니멀과 공동 영상물을 선보인 바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애플 효과' LG 함박웃음

LG디스플레이·이노텍, 지난해 4분기 실적 동반 상승

애플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이폰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LG그룹 부품 계열사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애플은 2015 회계연도 1분기(2014년 9월 28일~12월 27일) 순이익이 180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난 746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161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자그마치 69.9% 늘어난 것이다.

덕분에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도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8일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4741억원)보다 32% 증가했고, 전년 동기(2570억원)보다는 무려 144%나 늘어났다고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2010년 2분기(7260억원)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실적이다. LG디스플레이는 11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4분기 매출도 전 분기(6조5469억원)보다 27%, 전년 동기(7조790억원)보다 18% 각각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의 사상 최대 실적에는 대형 TV 패널 중심의 견조한 판매단가 흐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당 평균판매단가(ASP)는 모바일·태블릿용 디스플레이 부문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제품을 공급하는 애플이 지난 회계 1분기(작년 10~12월) 아이폰6 시리즈가 사상 최대치(7450만대)를 판매한데 힘입어 중소형 디스플레이 물량이 크게 확대됐다.

전날 영업실적을 발표한 LG이노텍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이상 급증했다. 매출은 17.6% 증가한 1조8150억원, 영업이익은 58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급증한 배경에는 주력 사업인 카메라모듈 중심의 광학솔루션사업과 차량 전장부품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LG이노텍은 애플 '아이폰6플러스'에 탑재된 800만화소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카메라모듈을 납품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올해 차량 전장부품, 카메라모듈, 반도체 기판 등 주력 사업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애플 효과는 길지 않을 전망이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28일 "1분기는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일 것"이라며 "애플 측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호조에 따라 이번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1분기(애플기준 2015년 2분기,1~3월)는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매출 가이던스는 520~550억달러로, 수익성 지표인 그로스 마진(gross margin)은 이번 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39% 정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ysw@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2위 굳힌다

작년 영업익 5조 '사상 최대'… 올 5조2000억 투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영업이익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업체 순위 2위에 오르기 위해 5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도 결정했다.

SK하이닉스는 28일 2014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매출액 17조1260억원, 영업이익 5조10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20.9%, 영업이익은 51.2% 증가한 수치다. 2년 연속 연간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연간 영업이익 5조원 클럽에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4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모든 제품군에서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매출은 5조1480억원, 영업이익 1조6670억원을 올렸다. 4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19.4%, 전년 동기보다 52.9%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8.1%, 지난해 대비 112.4%로 크게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2~3년간 실적을 투자에 집중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반 솔루션 기업'이라는 비전을 이뤄간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메모리반도체시장은 SK하이닉스(19.3%)가 미국의 마이크론(20.4%)과 함께 1위 삼성전자(35.2%)를 뒤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근소한 차이의 마이크론을 따돌리고 2위를 굳혀 양강체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회사 측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경기도 이천에 건설 중인 신규 공장인 M14 구축을 포함해 지난해 5조2000억원 투자를 집행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D램 출하량은 시장 성장 수준으로, 낸드플래시는 시장 성장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램에서의 생산량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1만5000장 증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쟁사에 비해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낸드플래시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TLC의 경우 올해 3분기 PC용 낸드플래시에 도입할 것"이라며 "모바일용의 경우 128기가바이트 TLC 제품을 2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반기에는 3D 제품의 양산성을 확보해 다가오는 시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이달 초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HBM과 와이드 IO2 등 실리콘관통전극(TSV)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제품의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Gb) 용량의 차세대 고성능 모바일 D램 '와이드 IO2'를 지난해 9월 개발에 성공했는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초고속 적층 메모리인 HBM의 경우 이미 양산에 들어가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LG전자 지난해 영업익 1조8285억원

전년비 46.4%↑… 5년만에 최대치

LG전자는 지난해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해 1조828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보다 46.4% 증가한 수치이며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매출액은 59조407억원이며 전년 대비 4% 늘었다.

회사 측은 "TV사업과 이동단말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5% 이상 변동할 경우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

한편 LG전자는 보통주 1주당 400원, 종류주 1주당 4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각각 0.7%, 1.6%이며 배당금 총액은 728억8544만3500원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올레tv, 미드 VOD 매출 '자막소송' 이후 급증

IPTV에서 지난해 '미국드라마 자막 소송' 이후 해외드라마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KT의 IPTV서비스 올레tv는 해외드라마 VOD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40% 이상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드 자막 소송'은 지난해 6월 말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 작품의 한글 자막을 제작하고 유포한 국내 아마추어 자막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한 사건이다. 올레tv는 '자막 소송' 및 '금칙어 심화' 등으로 위축된 해외드라마 마니아들이 IPTV로 유입돼 유료 VOD 구매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올레tv 측은 "그동안 미드는 합법적인 메이저 유통채널 부재로, P2P 사이트 등 '음지'에서 공유되고 시청이 이뤄져 왔다"며 "IPTV에서 해외 최신·인기 드라마를 빠르게 확보하고, 서비스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제값을 주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집계에 따르면 '미드 자막 소송'이 있었던 지난해 6월 이후 올레tv에서 '멘탈리스트', '셜록', '캐슬' 등 미드와 영드(영국드라마) 시리즈의 지난해 하반기 VOD 매출은 상반기 대비 40% 이상 치솟았다.

올레tv는 합법적인 해외드라마 관람 열풍을 지속하기 위한 프로모션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릴레이 무료관'을 신설하고, 12월 말까지 인기 드라마들을 단계적으로 비용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멘토링 덕분에 회사 생활 기대되요"

LG CNS,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개최

LG CNS가 올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선배 사원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LG CNS는 2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 123명과 선배 사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근무하게 될 부서의 선배사원인 멘토와 처음으로 만나 '서로 알아가기' 시간을 갖고 성공적인 멘토링을 다짐했다. 멘토는 소속 부서의 상황에 따라 1명에서 5명까지의 멘티와 결연하게 된다.

멘토링 결연식을 마지막으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사무실로 본격 출근하게 된다.

2006년 처음 도입된 LG CNS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의 업무뿐 아니라 사내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해 조직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랜딩 프로그램이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을 IT 전문가로 육성하는 한편, 멘토로 참여한 선배사원의 리더십 배양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LG CNS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배사원과 신입사원이 '멘토링'을 통해 강해진 역량과 연대감으로 LG CNS의 미래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기차'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LG CNS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파이낸스&컴플라이언스팀' 신입사원 임현수씨는 "IT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배사원과의 멘토링을 통해 회사에 빨리 적응해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IT 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영기자

홍준석 LPG협회장 "정부, LPG규제 완화해야"

홍준석 대한LPG협회장이 위기에 처한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홍 회장은 2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오토가스 서밋(Global Autogas.Summit) 2015'에서 LPG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LPG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유지되고 있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LPG의 사용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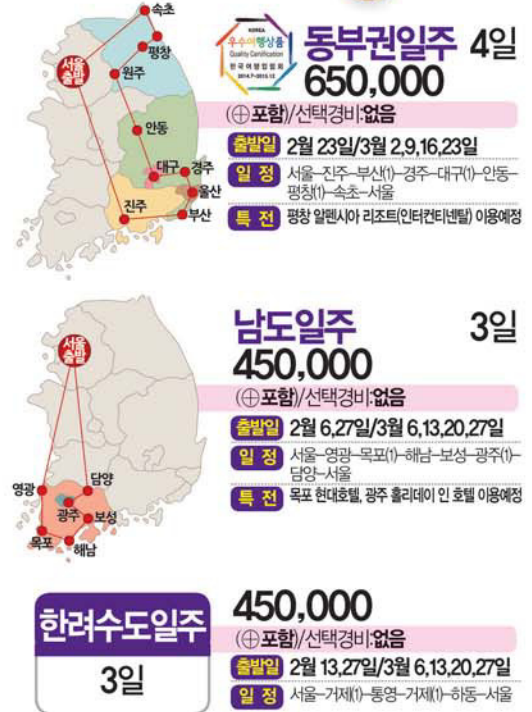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LPG 수요는 매년 성장세인데 반해 국내 시장은 어둡기만 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LPG 차량대수는 2010년 245만9155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해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10만대 정도 축소된 235만5011대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LPG자동차 보급대수가 매년 평균 10% 성장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세계LPG협회 킴벌 첸 회장(왼쪽)과 대한LPG협회 홍준석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오토가스 서미트'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대한LPG협회 제공

홍 회장은 "올해 9월부터는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책도 예고돼 있다"면서 "국내 LPG 수요의 기반인 택시시장마저 디젤 택시 등에 잠식되면 LPG 산업은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회장은 이어 "LPG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도 디젤차량의 30분의 1에 불과한 천연연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용 제한의 한계에 때문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며 "환경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LPG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킴벌 첸 세계LPG협회 회장은 "한국은 최고의 LPG 차량 기술력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와 시장이 LPG 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제주도 패키지여행 ★관광급 호텔 3일
244,600부터 (⊕1만원)/선택경비:있음
▶1월~3월 매일출발(설연휴 기간 제외) ●제주(2)
●왕복항공+관광급호텔 2박+조식 2회+중식 2회+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포함

제주도 자유여행 3일
276,900부터 (⊕없음)/선택경비:없음
▶1월~2월 매일출발(설연휴 기간 제외) ●제주(2)
●왕복항공+호텔 2박+조식 2회 포함

■여행상품 가격포함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선택경비(관광) : 있음/없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안전경보단계]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1.23. 업데이트 기준)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언제 어디서든!
☎1577-1212

티볼리 '광풍'…스타일·스펙 빠지는게 없네

쌍용차 부활의 신호탄 조짐… 계약 6천대 돌파

쌍용자동차가 3년여의 개발기간 끝에 선보인 신차 '티볼리'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목말라했던 국내 젊은 소비자들에게 '티볼리'의 감각적인 스타일과 남다른 스펙은 강렬한 SUV의 첫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테리어는 IT 기기 사용하기에 쉽고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어 '티볼리'만의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28일 쌍용차에 따르면 티볼리는 남다른 감각과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6컬러 클러스터(Six-Color Cluster)'를 적용했다.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미터 클러스터(계기판)를 ▲레드 ▲블루 ▲스카이 블루 ▲옐로 ▲화이트 그리고 ▲블랙의 6가지 컬러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미터 클러스터의 조명을 완전히 끌 수 있는 풀 오프(Full-off) 기능을 국내 최초로 탑재해 야간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공간 활용성 또한 주목할 만한 '티볼리'의 스펙이다

'티볼리'는 신기술과 첨단 소재를 아낌없이 활용하여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경쟁모델을 압도하는 적재공간과 SUV의 장점을 극대화한 공간활용으로 레저활동에도 손색 없는 편리함을 자랑한다.

동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1.4%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다. 이 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 역시 동급 최다인 40%에 이른다. 특히 주요 10개 부위에는 핫프레스포밍(Hot Press Forming) 공법으로 한층 뛰어난 강성을 갖춘 초고장력 소재를 사용하여 충돌 시 차체 변형을 최소화해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티볼리'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7 에어백을 비롯해 다양한 사양을 적용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안전벨트의 골반부 하중이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CLT(Clamping Locking Tongue) 벨트 시스템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충돌 시 안전벨트가 신속하게 골반 부분을 잡아 주어 상해를 방지하는 듀얼 프리텐셔너(Dual Pretensioner)로 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이와 같이 견고한 '티볼리'의 안전시스템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SUV명가 쌍용차의 제품 철학이 반영된 것. "안전 하면 역시 쌍용차"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더욱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423ℓ의 동급 최대 적재공간을 확보하여 공간 부족으로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레저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경쟁모델에는 적재가 어려웠던 골프백을 3개까지 실을 수 있으며, 준중형 세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2열 시트 풀 플랫 폴딩(Full-flat Folding) 기능으로 적재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SUV 본연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티볼리'는 세단 수준의 정숙성과 더불어 도심에서의 다이내믹 주행 능력을 통해 Fun to Drive를 실현했다.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벤츠 등 대형세단에 사용되는 MPI 엔진을 장착했다. 이와 더불어 사일런트 체인을 적용해 엔진 소음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엔진 회전수와 부하 정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기 흡입구를 조절하여 엔진 출력을 높여주는 가변 흡기 시스템(VIS)과 BMW Mini를 비롯한 유명 수입 브랜드에 사용되어 최고의 신뢰성과 응답성을 보여주는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하여 도심의 상용 주행 구간에서도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쌍용차는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동급대비 최상의 편의사양, 1635만~2347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티볼리가 소형 SUV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티볼리'는 누적 계약 6000대를 넘어서며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SUV는 투박한 이미지 였다면 티볼리는 작지만 예쁜 디자인과 낮은 가격 대비 뛰어난 활용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KT, '아이폰5S'가 공짜폰?

SK텔레콤도 "검토중"…보조금 전쟁 조짐

이동통신사 간 애플 아이폰5S에 대한 보조금 전쟁이 예고됐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아이폰5S의 공시 보조금을 기존 22만6000원에서 81만4000원(순완전무한77 요금제 기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이폰5S는 25일을 기해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 규정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81만4000원인 아이폰5S 16GB는 사실상 '공짜폰'으로 전락했다. 아이폰5S 32GB와 64GB는 할부원가가 각각 13만2000원, 26만4000원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공시 보조금의 15%가 추가 지급되면 단말기 구입 부담도 한층 줄어든다.

SK텔레콤도 조만간 아이폰5S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 간 주력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해 말 갤럭시노트3가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한바탕 보조금 인상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다만 갤럭시노트3의 경우 KT는 월 10만원이 넘는 완전무한129 요금제를 이용해야 공짜폰이 됐지만 아이폰5S는 7만7000원의 요금제 이용만으로도 공짜폰이 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아이폰5S에 대해 KT가 선제적으로 보조금 대폭 인상을 시도한 데 대해 최근 3개월 연속 가입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아이폰5S를 기반으로 반격에 나서려는 모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IT업계 "5G 시장을 선점하라"

기존 LTE보다 1000배 빠른 시대… 정부·국내 IT업계 준비 분주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놓고 정부와 국내 IT업계가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 이동통신은 기존 LTE보다 1000배 빠르게 사람·사물·정보를 초고속으로 연결시켜 실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과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5G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기가코리아사업'에 68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장비 및 서비스 부문에서 향후 7년간 국내에서만 55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4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기고 58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통신업계도 5G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기업인 노키아와 함께 5G 기술 선행 개발·검증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2018년 5G 기술 시연,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운 SK텔레콤은 노키아와 연내 경기 분당에 있는 SK텔레콤 종합기술원에 5G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가운데)이 지난 22일 핀란드 노키아 에스푸 본사에서 호세인 모인 노키아 테크놀로지&이노베이션 총괄(오른쪽), 유르겐 쉰들러 모바일 브로드밴드 5G 총괄(왼쪽)과 기가급 데이터 송수신 기술 및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노키아와 '차세대 주파수 간섭 제어(eICIC)' 기술도 상용화할 방침이다. 'eICIC'는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형 기지국과 소형 기지국의 혼합 구축 환경(HetNet)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5G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KT는 5G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자신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26일 광화문 신사옥 입주식에서 "글로벌 통신기업들이 2020년 5G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먼저 시연할 것"이라며 "홀로그램이나 4D 기술 등 5G와 관련 있는 기술들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세계적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에 이어 노키아와도 5G 네트워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손잡으면서 국내 이동사와 해외 통신장비 업체간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이동통신 시장이 미래 최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정부와 IT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최고의 네트워크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투자와 R&D를 통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글로벌과의 5G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채용 갑질·가격 뻥튀기…'벼랑 끝' 위메프

이미지 실추 지속에 방문자 수도 '뚝'…매출 하락 불가피

굴지의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최근 수습사원 전원을 불합격시킨 일명 '갑질 채용'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면서 대표까지 사태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최근 '가격 뻥튀기' 논란까지 번지면서 이미지 실추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농심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봉지에 소비자 가격 2400원인 이 과자를 위메프 측은 세 봉지에 7900원에 판매해 눈총을 받았다. 이러한 위메프 가격 책정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1봉지에 19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업계에서는 "허니머스타드 과자의 인기를 통해 소셜커머스에 어울리지 않는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위메프의 이미지 실추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위메프는 영업사원을 채용해 수습기간에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 기간 수습사원들은 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지만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 통보한 것. 논란이 불거지자 박은상 위메프 대표까지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연스레 방문자수도 하락했다. 온라인 트래픽 분석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12~18일 위메프의 순방문자는 236만85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주(1월5~11일)의 251만7196명보다 6% 줄어든 규모다. 그사이 쿠팡과 티몬의 방문자는 1주일 사이 각각 7.2%, 8.7% 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문제는 불매와 회원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메프의 신뢰성과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계가 성장의 한계를 맞은 가운데 불매 운동과 회원 탈퇴가 지속되면 기업 경영 실적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양적 성장만 추구하고 결국 내실을 기하지 못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위메프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유명 산지 수산물 싸게 사가세요" 28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제철을 맞은 유명산지 수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명 산지 수산물 기획전'을 연다. 여수·삼천포의 삼치와 여수 돌산 키조개, 울진 홍게를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스마트폰으로도 제품 선물하자

오픈마켓 '서비스' 진화

오픈마켓 업체들이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해를 거듭하면서 치열해지는 유통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층 더 혁신된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한다. 이는 오프라인 소비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번가 제공

28일 11번가에 따르면 오픈마켓 최초로 '선물하기'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제품을 받을 상대방 휴대전화(스마트폰) 번호만 알면 11번가에서 판매하는 4000만여 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편리하고 알뜰하게 선물을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선물하기'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할인쿠폰, T멤버십, OK캐쉬백 등 11번가의 혜택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1번가 '선물하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큐레이션서비스'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최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인터넷 쇼핑 흐름에 맞춰 상품 전문가가 직접 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인터파크는 '모닝커피&베이글'을 새롭게 론칭했다. 현재 진행중인 다이나믹프라이스·럭키백 서비스 등과 함께 모바일 쇼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11번가는 '모바일 쇼킹딜 11시' 서비스를 통해 평일 오전 11시, 오후 11시마다 성별·연령별로 추천상품을 판매한다. 롯데닷컴은 다음 달부터 MD가 간다를 고정 플랫폼으로 상시 운영한다. 카테고리 별로 MD가 직접 산지와 제조공장 등을 찾아가 상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G마켓은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 배달 음식 전문 중소업체인 앤팟과 함께 모바일 앱 내에 배달 메뉴를 신설했다. 기존 배달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음식 배달 서비스로 배달 수수료는 9% 선으로 알려졌다. /김보라기자

국제시장 열풍…부산 '먹거리' 인기

대형마트에서 호떡·어묵 등 매출 상승세

대형마트 먹거리에 '부산'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다.

28일 롯데마트가 올들어 지난 26일까지 호떡과 어묵 등 부산과 관련된 먹거리 매출을 살펴본 결과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호떡은 8.9%, 호떡믹스는 19.5%, 어묵은 8.6%, 간식용 어묵은 11.4% 매출이 늘었다.(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1월 31일이 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품목별로 20~30% 가량 매출이 증가한 수준이다.

마트 측은 "영화 '국제시장'의 인기와 더불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간식거리로 수요가 높았던 점과 최근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요리를 찾는 고객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롯데마트는 이같은 고객 수요를 감안해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2주 동안 '부산' 관련 먹거리를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판다. 전자레인지에 1분 가량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한성 해바라기씨앗 녹차·찹쌀 호떡(각 400g)'을 각 6000원에,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해 호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큐원 찰·단호박

호떡믹스(각 400g)'를 각 1690원에 판매한다.

또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사조대림 쉐프덴 고구마 쏘옥 어묵(180g)', '늘푸른 수제어묵 문어(150g)', 'CJ 프레시안 삼호어묵 채소모듬(200g)'등 총 11종의 어묵을 각 298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2개 구매 시에는 10% 추가 할인, 3개 이상 구매 시에는 추가로 15% 할인한다.

백승준 롯데마트 조미식품 MD(상품기획자)는 "최근 국제시장의 인기에 씨앗 호떡을 비롯해 호떡 믹스, 어묵 등 부산발 먹거리의 인기가 높아 관련 상품을 저렴하게 준비했다"며 "최근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관련 상품들이 가정에서 좀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비욘드 유기농 화장품 출시

LG생활건강은 '비욘드 트루 에코 링클 에센스&크림' 2종을 출시했다.

식약처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을 심사 받은 유기농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 추출물을 함유한 100% 유기농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재배 과정부터 유해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유기농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유기농 병풀추출물, 유기농 카밍컴플렉스 등 유기농 인증 성분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모바일에선 설 선물 반값

G마켓은 설을 앞두고 모바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2015 설 혜택 플러스' 행사를 진행한다.

G마켓은 다음 달 15일까지 매일 설 선물세트 4개씩을 선정해 판매하는 '설 슈퍼딜' 코너를 운영하고 2월 1일까지 매일 모바일 고객 1000명에게 선착순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월 2일~8일까지 신한·현대·국민·롯데·NH농협 등 5개 카드 고객에게 모바일 전용 20% 할인쿠폰도 선착순 지급한다. 이외에도 G마켓은 설 선물 특별관을 마련하고 다양한 품목과 가격대의 설 선물을 할인 판매한다.

기지개 켜는 '먹는' 숙면제품 시장

국내 '웰슬리핑' 1조5000억 규모…CJ제일제당·롯데헬스원 등 잇단 제품 출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웰슬리핑(well-sleeping)'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이불·베개 등 침구류의 집중에서 벗어나 '먹는' 숙면제품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웰슬리핑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다. 이마저도 침구류에 치중돼 있으며 숙면식품 시장은 전무하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08년 22만8000명에서 2012년 35만7000명. 5년 만에 약 60% 가량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숙면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슬리피즈'를 출시하며 숙면시장에 진출했다.

이 제품은 북유럽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 밤에 짠 우유인 '나이트 밀크'를 마신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나이트 밀크에는 우리 몸을 잠 들게 해주는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슬리피즈는 늦은 밤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마실 수 있도록 무지방 제품으로 설계됐다.

CJ제일제당 건강식품팀 박상면 총괄 부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관련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 3년 내에 200억원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KT&G 자회사인 KGC라이프앤진은 최근 기능성 개별인정을 받은 '감태추출물'을 활용해 올 상반기 수면건강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감태추출물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높은 천연 식물성 소재다. 감태는 제주 청정해역에 서식하는 식용 갈조류로, 부작용 없는 새로운 형태의 천연수면 유도 기능으로 주목 받고 있다.

KGC라이프앤진 건강식품마케팅부 박지예 부장은 "수면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자사의 감태추출물이 '천연 수면유도제'로 국민 수면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먹는 수면용품 시장이 크게 성공을 거둔 적이 없어 관련 업계는 우려의 시선도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 슬리피즈와 롯데헬스원 양백마리.

롯데헬스원은 2012년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료 '꿈속으로 양백마리'를 선보였는데, 현재 소량 생산만 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출시 당시만 해도 숙면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료로 새로운 드링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비자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숙면제품 시장은 침대·아로마 캔들에 치중돼 있었다"며 "최근 CJ제일제당 등 다양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을 볼 때 앞으로는 '먹는' 보조제품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우로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아웃도어, 나홀로 호황 끝?

골프웨어·캠핑 시장 진출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지속해왔던 아웃도어 업계가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길 찾기에 한창이다.

다양한 영역으로 발을 넓히는 한편 다기능 제품 등 불황형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성장 발판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성장 추세인 캠핑 등 여가활동에 적합한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제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업계는 '아웃도어=등산복'이라는 공식을 깨고 골프웨어, 워킹화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해왔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스포츠 업계와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밀레는 2015년 봄·여름 시즌에 맞춰 자동차 브랜드 '푸조'와 협업해 도회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골프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봄 '아치스텝 2'와 고어 서라운드 기능을 접목한 워킹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와일드로즈, 노스케이프 등 아웃도어 브랜드를 전개 중인 형지는 '카스텔바작'을 인수하며 골프웨어 시장을 노리고 있다.

K2 역시 지난해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를 론칭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불황형 상품으로 다기능 제품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엠리밋은 폴라플리스 재킷과 바람막이 재킷을 탈착 가능하게 구성한 '3IN1 브릿지 재킷'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살로몬도 경량 다운재킷 내피와 방수재킷 외피를 세트로 구성해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주피터 3IN1 재킷'을 출시했다.

불황에도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스포츠는 매장 내에서도 다양한 아웃도어 체험이 가능하도록 트래블 존, 익스트림 존 등의 체험 공간 마련된 플래그십 스토어를 청담동에 오픈해 운영 중이다. 아이더는 캠핑을 하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카티즈 시네마 텐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노스페이스는 각종 탐험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담긴 '탐험백'(Exploration Bag)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밀레 스포츠라이트 재킷.

현대百 "화사한 봄 침구 준비하세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다음달 1일까지 '봄맞이 침구 세트 준비전'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까사블랑, 레노마, 에이프릴앳홈 등 5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봄 침구류를 20~4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KT&G '더원 임팩트 한정판' 출시

KT&G는 미국 메릴랜드산 고급 잎담배 4%를 담은 '더원 임팩트 한정판'(사진)을 28일부터 약 4주간 판매한다.

타르 함량이 1mg이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더원 임팩트'의 특별판으로, 메릴랜드 잎을 함께 블렌딩해 보다 풍부한 맛을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세계적인 남성잡지 '맥심 매거진'과의 디자인 합작으로 맥심의 남성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반영한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도 선보인다.

더원 임팩트 한정판의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1.0mg와 0.10mg로 기존 더원 임팩트와 같다.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롯데칠성, 7만명 대상 '롱넥보틀' 경품행사

롯데칠성음료는 2월 4일까지 '마운틴듀'의 신규 패키지 '롱넥보틀' 붐업 조성을 위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무료로 판매되는 '롯데칠성몰 룰렛이용권'을 구매해 롯데칠성몰에서 이용권 번호를 입력한 뒤 응모하면 된다.

총 7만명이 휘닉스파크 시즌권, 버튼 고급 등을 약 9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팔도 해외 수출 5000달러 돌파

팔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10.9% 신장한 5008만 달러(526억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팔도는 지난해 부탄·사모아·아루바(카리브해) 등 3개국을 추가로 개척해 총 64개국에 라면·음료 등 총 323개의 제품을 수출했다.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5%에 해당하는 1300만 달러 어치를 팔았다.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 캐나다, 몽골 순이다.

해외에 가장 많이 판 제품은 '알로에음료'(770만달러)이며 뽀로로음료, 도시락, 사발면, 일품짜장면이 그 뒤를 이었다.

혈관도 살이 찐다?

혈관 벽 두꺼워지면 치명적

평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면 동맥경화 등 다양한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화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죽상반 등 이물질이 생겨 혈관에 들러붙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진다. 죽상반은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여러 물질들을 끌어들여 딱지화된 물질로 혈관 내벽을 말 그대로 뚱뚱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실제로 경동맥 내중막두께지수(IMT)가 0.15㎜를 초과하면 동맥경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죽상반 등이 혈관의 70%를 막으면 혈관 질환과 함께 다양한 합병증이 발행할 가능성이 7배 이상 증가한다. 혈중 콜레스테롤 등이 양호한 상태라고 해도 혈관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산화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혈류가 증가했을 때 좁아진 혈관은 치명적이다. 조세행 연세중앙내과 원장은 "평소 정상 혈압을 보이던 노인들이 산화스트레스 등으로 자극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흥분했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혈관이 강직되고 좁아져 있다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평소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소 혈관관리를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통해 혈관이 두꺼워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혈관 내벽 두께의 증가는 노화의 영향을 받는데 늙어버린 혈관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혈관의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며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씨스팜의 '혈관팔팔'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관 두께 감소 기능성으로 개별인정을 받은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여수 산단 안전대책 논의

안전보건공단, '사고 예방 결의대회·심포지엄' 개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7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 대형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예방 결의대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여수산단 내 화학공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방안 ▲가스 안전연구와 독성가스 안전기술 동향 ▲비상 발전기 활용 극대화 방안 등이 발표됐고 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또 결의대회에서는 여수 산단 내 공장장 등 안전보건 책임자들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에 서명하고 안전 실천을 약속했다. /황재용기자

이대목동병원, 양천구청과 아토피 진료 협약

매월 2·4주 토요일 보건소서 상담센터 운영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지난 26일 양천구청(구청장 김수영)과 '보건소 아토피 전문의 무료 진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월 2·4주 토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아토피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병원은 피부과와 알레르기내과 전문의를 파견할 계획이며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진료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환자 중 취약계층에게는 의료비와 보습제 등이 지원된다.

유권 이대목동병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천구 내 아토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암 극복한 후 찾아온 성대마비

수술 등으로 성대마비 발생 흔해…즉각 치료해야

성대마비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목소리 변화를 일으키는 난치성 목소리 장애다. 하지만 문제는 갑상선암 등 다양한 수술적 치료 후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대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성대마비는 성대를 움직이는 후두신경의 경로를 따라 암이 생겼거나 갑상선·가슴·척추수술 등 수술적인 치료 시 후두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또 후두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성대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겨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성대마비의 주요 증상은 목소리 변화다. 말을 할 때 마비된 성대가 움직이지 않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목소리가 변한다. 따라서 수술 이후 혹은 갑작스럽게 목소리에 변화가 생겨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후두근전도 검사를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성대마비 환자들은 대부분 자연 치유를 기대해 무작정 기다리거나 목소리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성대마비를 방치하면 성대근육이 퇴화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성대의 움직임이 제한돼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지 못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기도 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폐렴이나 폐 기능 저하 등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

김형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은 "성대마비가 오면 음성치료와 간단한 경피적성대성형술로 목소리 회복이 가능하다. 질환을 방치하면 성대가 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쉰 목소리가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동국제약, '스카지움겔' 출시

식물성분 함유 흉터 치료제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식물성분을 함유한 흉터 치료제 '스카지움겔'을 출시했다.

제품은 ▲알란토인 ▲헤파린나트륨 ▲양파 추출물 등의 활성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는 이 성분들의 복합작용을 통해 제품이 갓 생긴 흉터는 물론 오래된 흉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국내 상처치료제 시장에서 '마데카솔'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물성분 흉터 치료제를 출시했다. 식물성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투명한 겔 제형이라 얼굴 부위에도 티 나지 않게 바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황재용기자

직원의 마음을 훔쳐라!

한국로슈 직원 위한 '리브 웰 캠페인' 눈길

상여와 포상을 넘어 임직원의 동기 부여와 효율성 제고 등을 이끌어내는 순환적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한국로슈의 '리브-웰 캠페인(Live Well)'은 기업의 업태와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캠페인은 로슈 임직원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글로벌 사내 캠페인이다.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임직원의 건강 역시 챙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장시간 앉아 있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필라테스 클래스. /한국로슈 제공

▲건강한 생활양식 ▲감성의 웰빙 ▲예방 습관 ▲웰빙 정보 등 4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임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올해 진행된 일주일의 캠페인기간 ▲컬러명상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내 마음 보고서 등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 ▲빅워크 걷기 ▲내 몸 살리는 건강 밥상 ▲필라테스 클래스 등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신규 입사자들은 심리치유전문기업인 마인드프리즘의 내 마음 보고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스트레스 지수, 우울 경향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결과는 책으로 제작돼 이들에게 전달됐다.

또 점심시간을 활용한 컬러명상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장시간 의자에 앉아 업무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필라테스 클래스 역시 큰 호응을 받았다. /황재용기자

단속 비웃듯 버젓이 분양 과장광고

'영등포 오피스텔 5000만원 2채' 등 현수막… "수요자 꼼꼼히 따져봐야"

저금리 기조 속 오피스텔·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거짓·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에게 철퇴를 내렸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마포 일대 교차로를 중심으로 '5000만원에 2채, 매월 130만원씩', '1억원에 3채, 월 21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5000만원에 2채, 매월 130만원'으로 광고하고 있는 영등포 S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의 분양가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1억원에 3채, 월 210만원' 현수막의 주인공인 가양역 K오피스텔도 16㎡짜리 분양가가 1억2000만원에 이른다.

5000만원과 1억원으로 2~3채는 커녕 1채도 사기 힘든 금액일 뿐 아니라, 매달 130만원과 210만원이라는 월세액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전형적인 과장광고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 수익률 ▲장기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익 보장기간 ▲대출금이나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실투자금 ▲주변 배후 수요를 산술적으로 표현 ▲건축물 용도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광고 ▲고객 유인시설 입점 확정·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영등포 S오피스텔은 중도금 60%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해야 5000만원에 2채를 살 수 있다. 이마저도 가장 작은 면적인 26㎡에만 해당된다. 가양역 K오피스텔 역시 중도금 70%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안했을 때 1억원에 3채를 계약할 수 있다.

S와 K오피스텔 분양 관계자 모두 "분양가는 1억원대 초반이지만 중도금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면 3000만원 안팎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현수막에 적힌 월세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대출만 강조한 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라도 입주 후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3~4% 수준의 이자가 발생한다.

분양업체가 주장하는 월세액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영등포 일대 A부동산 관계자는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역 주변으로 50만원 안팎의 월세가 많다"고 말했다. 가양동 B중개업소 대표도 "복층 새 오피스텔이라 세대당 70만원 정도의 월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50만원을 넘지 않은 물건도 많다"고 귀띔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수익형부동산 과장광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점검할 계획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어렵고, 특정 지역에만 현수막이 걸렸을 경우 광고를 보는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요자들 스스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계약 전 입지, 적정 분양가,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잠실 재건축 탄력에 장미아파트값 '꿈틀'

서울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와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장미아파트는 더딘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주공5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인근 신천동 미성아파트는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을 완료한 뒤 사업시행인가 협력업체선정까지 끝냈다. 진주아파트도 지난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2년 여만인 올해 조합설립을 앞둔 상태다. 지난 여름에서야 안전진단 동의서를 준비한 장미아파트만이 재건축 사업에서 한 발 늦은 형국이다.

주공5단지는 2003년 겨울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10년 만에 조합을 꾸려 2013년부터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7월 최고 50층 높이로 짓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주민총회에서 통과되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한 미성아파트는 5년만인 지난해 6월 조합 창립 총회를 열었다. 같은 해 9월 대의원회의에서 도시·친환경 분야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업체 선정을 마친 상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장은 "단지 내 부녀회 등 대표단과의 합의가 주효했다"며 "추진위 시절 사무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김규식 조합장이 건축사로 전문가여서 업무가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주아파트는 지난 2006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9년만에 조합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반성용 진주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주민 동의 88%로 3월 중 창립 총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사업 진행 15년만에 조합설립을 하게 된 것이다.

진주아파트는 전용 82㎡ 이상 중대형 가구가 60%에 달한다. 이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전용면적을 2세대로 분할 할 수 있다는 '1+1 재건축' 계획이 주민을 설득했다. 반성용 추진위원장은 "요즘 시세는 대형 평수가 낮아지고 소형이 높아지는 추세다. 대형 하나 놓고 해당 면적 만큼 중·소형 2개를 가져 갈수 있으니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미아파트는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이 아파트는 1979년 21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대표 노후 단지다. 지난해 7월 안전진단 동의서를 준비한 장미는 재건축추진위를 준비 중이다. 장미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용적률에 따라 추가 증축이 어렵고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주민은 "전용면적이 큰 세대가 진주· 미성보다 많다. 30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이 많은 지역이라 보상부터 재건축 기간 문제 등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SK건설, 모노레일 사장교 준공 SK건설은 최근 대구 중구 대봉동~수성구 수성동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신천횡단사장교를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입소문을 타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신천횡단사장교의 야간 전경. /SK건설 제공

전국 2월 입주물량 1만3천가구

전년동기비 35% 감소

전국 기준 2월 입주물량이 1만3000여가구로 조사돼 지난해 11월(2만6933가구)을 고점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난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다음달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주상복합 및 임대아파트 포함)를 조사한 결과 총 24개 단지 1만3160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월(1만8446가구) 대비 28.66%(5286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전년동기대비(2만358가구)로도 35.35% 감소했다.

지역별 입주물량은 ▲서울 500가구 ▲경기 4273가구 ▲광역시 2375가구 ▲지방중소도시 6012가구다.

입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에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2월 중 입주를 진행하는 단지는 2곳으로 총 2082가구다.

오는 30일부터 동탄2계룡리슈빌, 동탄2모아미래도, 동탄2센트럴자이, 동탄2이지더원, 동탄2금성백조예미지 등 5개 단지 총 3700여가구가 집들이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가격은 다소 내릴 전망이다.

우남건설이 동탄2신도시 A15블록에 짓는 동탄2우남퍼스트빌은 24일부터 입주한다. 20~37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1442가구로 구성됐다. 59㎡ 매매 3억3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전세 1억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선이고 84㎡는 매매 4억~4억3000만원, 전세 2억원~2억5000만원이다.

KCC건설이 동탄2신도시 A27블록에 짓는 동탄2KCC스위첸은 28일 입주를 시작했다. 24~29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640가구다. 84㎡ 전세는 2억원~2억5000만원, 매매는 3억3000만원~3억6000만원 선이다.

/김학철기자

'피노키오' 아역 이미지 벗은 **박신혜**

앳되보이지 않게 아이라인 진하게 그려
미간 연기 지적… 신경 쓰되 자연스럽게
공개연애 NO… 책임질 수 있을 때 결혼

"애정신 서슴없어졌죠"

배우 박신혜(25)는 SBS '천국의 계단'(2003) 최지우 아역으로 데뷔했다. '천국의 나무' '궁S' 등을 통해 유망주가 됐다. 2009년 SBS '미남이시네요'로 성인 연기자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상속자들'(2013)로 20대 여배우로선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했다. 최근 종영된 '피노키오'에선 아역 이미지를 완벽히 지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뚜렷한 직업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눈화장도 전작보다 진하게 했어요. 아이라인이 보이지 않으면 앳되보이기도 하고 눈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동안 표정연기를 할 때 미간을 많이 쓴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피노키오'에선 (미간을) 신경 썼어요. 그래도 사람 근육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경은 쓰되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했죠. '피노키오'는 저를 성장시킨 작품이에요."

박신혜는 아역 시절과 가장 많이 달라진 걸로 "애정신"을 이야기했다. 그는 장근석·이민호·이종석과의 연인 연기로 한류팬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애정신이 많아졌고 서슴 없어졌죠. (웃음) 키스신은 남자 배우 몫이 큰 거 같아요. 리허설 할 때 손 동작까지도 상의하죠. 화면에 예쁘게 나오는 걸 고민하게 돼요. 현장에서 서로 불편하면 연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저를 오픈하고 친해져야 호흡을 맞출 수 있죠. 다정한 장면도 저 혼자 하면 지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잘 이끌어 주니까 완성되는 거 같아요. '피노키오' 이종석은 리액션이 확실하고 표정 연기가 좋은 배우죠. 쿵짝이 잘 맞았어요."

가수 이승환과 인연이 깊다. 이승환의 '꽃'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가수 연습생이었어요. 어리다 보니 노래할 때 감정이 없으니까 연기를 배웠죠. 그게 계기가 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천국의 계단'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가수가 됐어도 연기돌로 활동했겠죠. 이승환과는 계속 연락해요. '피노키오' 종방 날에도 '고생했다'고 연락해주셨고요. 이승환이 나온 JTBC '히든싱어'도 봤어요. '다 맞췄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역시 조카는 다르다'고 하셨죠. 콘서트 많이 간 사람이라면 진짜 이승환을 찾을 수 있었을 걸요? 끝에 들리는 잔여음이 남다르거든요. (웃음)"

애교 많은 여배우로 알려졌다. 그는 "제 엄마 애교를 보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가족을 소개했다.

"실제 모녀 관계는 '피노키오' 최인하·송차옥(진경)과 전혀 달라요. 엄마가 저보다 애교가 많죠. 저희 오빠는 밖에서 제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뿌듯해하는데 어렸을 때는 동생인 걸 숨겼죠. 전역하고 살가워졌어요. 사춘기 때는 제가 팔짱을 껴도 '만지지 말라'고 했죠. 밤에 늦게 오면 데리러 올거면서 말이 많아요. 츤데레(처음엔 퉁명하고 새침하지만 애정을 갖기 시작하면 부끄러워하는 성격)죠. 외모는 살찐 성시경인데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데뷔 13년 차지만 열애설이 난 적 없다. "연애는 알게 모르게 늘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공개 연애는 하고 싶지 않고 결혼 할 때 예쁘게 발표하고 싶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걸 느껴보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책임 질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솔트 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최송이

star bag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

봉준호 감독이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일반 경쟁부문 심사위원이 됐다. 2006년 배우 이영애에 이어 두 번째다. 심사위원단에는 봉 감독 외에도 프랑스 배우 오드리 토투, 독일 배우 다니엘 브륄, 미국 드라마 제작자 매튜 와이너 등이 포함됐다.

일본서 콘서트 팬미팅

배우 **주원**이 일본 팬미팅에서 100분 동안 열창했다. 지난 23~25일 도쿄·교토에서 단독 팬미팅 '주원 2015 스위트 스마일 라이브'를 열어 일본팬 3000여 명을 만났다. 주원이 출연한 KBS2 '내일도 칸타빌레'는 다음달 일본 후지TV에서 공개된다.

나비와 '리스펙트4' 발매

래퍼 **아웃사이더**가 다음달 초 새 앨범 '리스펙트4'를 발표한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앨범에선 가수 나비와 함께 한 듀엣곡도 선보인다. 소속사는 "언더그라운드 활동 초기 들려줬던 거친 랩과 실력파 아티스트들과의 컬래버레이션 곡이 골고루 담겼다"고 설명했다.

사진전 '보푸라기' 개최

걸그룹 레인보우 **김지숙**이 다음달 5~25일 서울 충무로 이룸갤러리에서 사진전 '보푸라기'를 연다. 일상에선 지나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특별한 것들을 자신의 감성으로 담은 작품을 준비했다. 수익금은 초록어린이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온라인 핫 이슈

연매협 "클라라 시장질서 무너트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클라라(사진)에게 자숙을 요구했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8일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 회장이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P사는 클라라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앞선 2012년 7월에도 이중계약 문제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연매협 측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성적 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이 공개적 논란이 됐고, 그 여파가 대중에게까지 미치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유호정 딸 첫 공개…"엄마 닮아 예쁘네"

배우 유호정(사진)·이재룡이 둘째 딸 예빈이를 최초 공개했다.

28일 SBS '즐거운 가'에는 유호정·이재룡 부부가 딸 예빈이와 함께 출연했다.

예빈이는 '즐거운 가'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해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예빈이는 유호정의 단아한 미모를 빼닮아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효진기자

영화제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

기자 수첩

장병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지난 2006년 7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리얼판타스틱영화제가 열렸다. 2001년부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를 이끌어온 김홍준 집행위원장이 부천시로부터 해촉당하자 이에 반발해 전직 스태프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해 개최한 영화제였다. 예산도 규모도 기존 영화제보다 턱없이 작았지만 그 내용만큼은 '판타스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알찼다.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진정한 영화의 축제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부산시가 빚고 있는 갈등을 보면서 리얼판타스틱영화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압력에서 시작된 갈등이라는 점에서 그러했다. 여타 영화제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실을 쌓아온 부산국제영화제이기에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제19회 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었다. 세월호 문제를 다룬 이 영화는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영화제 상영 취소를 요구했으나 영화제 측은 이를 거부하고 상영을 강행했다.

그러나 논란의 여파는 계속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감사를 벌여 초청작 선정 관련 규정 위반 등 19개 지적사항을 전달하며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누가 봐도 '다이빙벨' 논란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영화제는 물론 영화 단체들도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부산시의 사퇴 종용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7일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2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제의 본질은 '영화'다. 영화제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축제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가 비슷한 갈등과 내홍 속에 활기를 잃게 된 것을 부산시는 돌아봐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무사히 20주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내 심장을 쏴라' 원작자 정유정

"소설 영화화? 변주에 대한 기대 커요"

분투하는 청춘에게 바치는 작품…'7년의 밤' '28'도 영화 제작

정유정 작가는 인간의 본성을 지독할 정도로 파고드는 이야기꾼이다.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감각적인 문체로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다. 충무로가 오래 전부터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탐내온 이유다.

28일 개봉하는 영화 '내 심장을 쏴라'(감독 문제용)는 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첫 번째 영화다. 2009년 발간된 동명의 원작은 제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정 작가의 이름을 문학계에 널리 알렸다.

"분투하는 청춘에게 바칩니다." 소설과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장은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담아낸 말이다. 작가의 청춘이 반영된 말이기도 하다.

"20대를 가장처럼 보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가 3년 반 정도 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큰딸로서 세 동생의 엄마 노릇까지 해야 했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절망도 느꼈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던 때였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토닥여준다면 더 버틸 힘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분투하고 있을 청춘의 등을 두들겨주자는 심정으로 소설을 썼어요."

정 작가의 소설은 늘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다. '내 심장을 쏴라'는 '운명이 내 삶을 침몰시킬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정신병원에 모인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청춘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다.

"자유의지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욕망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온몸을 내던져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심장을 쏴라'는 자유의지대로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는 수명이 자유의지의 표상과 같은 승민을 만나 성장하는 이야기죠. 넓은 폭으로 본다면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청춘에 대한 분투기가 있어요."

정 작가가 쓴 소설의 영화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표작인 '7년의 밤'은 현재 추창민 감독이 시나리오를 맡아 막바지 작업 중이고 최근작인 '28'도 최근 영화화 판권 계약을 마쳤다. 그는 "영화화 판권을 계약할 때 중요한 건 단 두 가지, 제목과 주제를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내 소설이 다른 감독의 손을 통해 어떻게 변주될지 기대된다"고 털어놨다.

'28' 이후 히말라야로 떠나 에너지를 충전하고 온 정 작가는 올해 또 다시 창작의 시간으로 뛰어든다. 다음 작품은 초고까지 나온 상태로 조만간 남해에 내려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박보영·정재영, 연예부 기자된다

'열정 같은…' 캐스팅 3월 크랭크인

배우 박보영(사진 왼쪽)·정재영이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감독 정기훈)를 통해 연예부 기자로 변신한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는 스포츠지 연예부 수습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 도라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사 하재관을 만나 사회생활의 거대한 벽에 온몸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영화다.

박보영은 명문대 출신이지만 가까스로 수습 딱지를 떼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 열정과 패기의 새내기 기자 도라희 역을 맡았다. 특유의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표하는 공감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영은 확고한 신념으로 연예부를 이끄는 데스크 하재관 부장을 연기한다.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로 극에 생동감과 긴장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기훈 감독은 "박보영은 시나리오 속 도라희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줄 최고의 배우다. 기존의 앳된 이미지를 탈피한 첫 영화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정재영은 언제나 믿고 보는 배우"라며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촬영 준비 중이며 3월 크랭크인해 내년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충성! 이정협 포상휴가 간다

국군, 아시안컵 우승 병역혜택 없지만 포상 검토

2015 호주 아시안컵 우승이 병역혜택이나 군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유일한 '군대렐라' 이정협(24·상주 상무)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포상휴가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군체육부대장인 고명현 준장은 28일 "이정협 상병이 자랑스러운 한국 군인으로서 아시안컵에서 중요한 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하고 있다"며 "대회가 끝나면 포상휴가를 줄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에게 '깜짝' 발탁된 이정협은 개최국이자 강력한 우승후보인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과 이라크와의 4강전에서 결승골을 뽑았다. 이라크전에서는 도움도 기록했다.

고 준장은 "준우승에 그치면 이 상병의 포상휴가를 '그냥' 검토하겠으나 우승을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무 소속의 이정협이 26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준결승 이라크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뒤 이 상병이 경례를 하지 않아 꽤 혼이 났다"며 "결승전에서 골을 넣을 경우 경례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군인으로서의 자세도 경기력, 승리에 대한 기여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협이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우승컵과 포상휴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호주 팀 내에서 3골로 최다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 케이힐(왼쪽).

'호주 득점핵' 루옹고 막아라

1골 4AS 기여도 최고… 케이힐도 3골 경계 0순위

한국과 아시안컵 결승에서 맞붙는 호주 축구 대표팀의 특색은 다양한 득점 루트다.

호주는 지난 27일 아랍에미리트와의 2015 호주 아시안컵 준결승전까지 5경기에서 12골(경기평균 2.4골)을 터뜨렸다. 특히 득점자가 무려 10명에 이른다.

최전방 공격수 팀 케이힐이 3골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이 골 맛을 봤다. 공격수 토미 유리치, 로비 크루스, 미드필더 제임스 트로이시, 마크 밀리건, 밀레 예디낵, 매트 매케이, 마시모 루옹고, 수비수 제임스 데이비드슨, 트렌트 세인즈버리가 한 골씩을 터뜨렸다.

호주의 득점자 수는 우승 경쟁 후보로 꼽히던 일본(6명), 이란, 한국(이상 5명), 이라크, 우즈베키스탄(4명)보다 훨씬 많다.

호주의 득점 양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인물로는 중앙 미드필더 루옹고가 거론된다. 루옹고는 5경기에 모두 출전해 406분을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1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성공률 82%의 섬세한 패스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가 올린 크로스나 코너킥의 31%는 슈팅으로 연결됐다.

한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결승전은 오는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다. /김민준기자

"진우야, 넌 몸부터 만들어라"

김기태 KIA 감독 2군 스프링캠프행 통보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KIA 우완학' 김진우(32·사진)가 2군 전지훈련 통보를 받았다.

KIA는 28일 2015시즌을 대비한 2군 선수단 대만 전지훈련 명단을 공개했다. KIA 2군 선수단은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대만 타이난과 가오슝에서 33일 동안 해외 전지훈련을 한다.

정회열 퓨처스 감독은 "투수 12명, 포수 2명, 야수 10명 등 총 32명의 선수와 코칭스텝을 이끌고 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우는 스프링캠프를 소화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 일본 오키나와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해 2군 해외 전지훈련 명단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김진우는 KIA 투수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은 김진우가 1군 훈련을 소화할 정도의 체력을 회복할 때까지는 1군 오키나와 캠프 합류를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2군 대만 훈련을 준비한다. KIA 2군 선수단은 타이난 진리대학 야구장에서 '5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기초 체력 및 기술 훈련을 한다.

2월 18일 가오슝으로 이동해 두산 베어스 2군과 3경기, 대만 라미고 몽키스와 1경기 등 4번의 평가전을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박태환 징계여부 내달 27일 결정

로잔서 수영연맹 청문회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마린보이' 박태환(26·사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가 다음 달 27일 열린다.

대한수영연맹은 28일 "FINA가 2월 27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로잔에는 FINA 사무국이 있다. 청문회에는 박태환과 그의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대한수영연맹의 이기흥 회장과 정일청 전무 등이 참석해 이번 파문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박태환에게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국내에서 마무리훈련을 하던 지난해 9월 초에 실시한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태환 측은 "아시안게임 약 2개월 전에 국내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맞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핑에 적발된 선수의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명시돼 있어 박태환에 대한 FINA의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우즈 앞니 깨지는 '황당한 사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비디오 카메라와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피닉스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애리조나주를 찾은 우즈는 대회 개막 이틀을 앞둔 28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우즈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알파인 스키선수 린지 본의 월드컵대회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 무릎을 꿇고 화면을 찍던 한 카메라맨이 갑자기 일어났고, 이 카메라맨의 어깨에 있던 비디오 카메라가 앞니를 부러뜨렸다.

우즈는 "내가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맨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며 "한동안 부러진 이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우즈는 빠진 앞니를 새로운 이로 대체해 이가 부러진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민준기자

임금님 수랏상에 오른 매생이국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겨울에는 매생이국이 특히 맛있다. 마늘로 양념하고 굴 넣어 끓인 매생이국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트리면 고소하고 향긋한 맛이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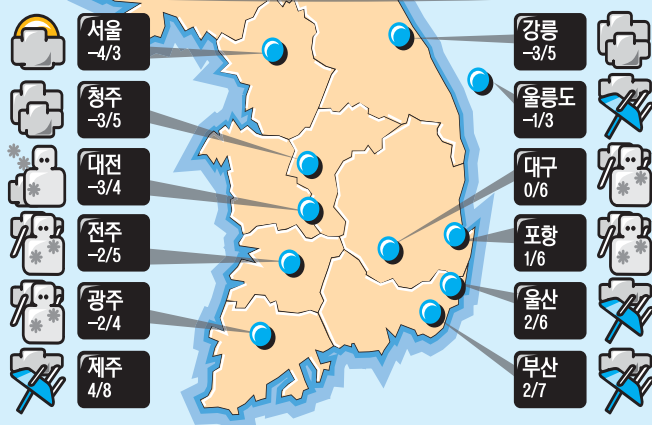
매생이는 전남 바닷가 특산물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만해도 현지에서나 먹었을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때문에 파래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는데 어쩌다 파래에 매생이가 몇 올 섞이면 파래 값 떨어진다고 질색을 했다.

하지만 더 먼 옛날, 조선시대 매생이는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던 별미다. 흔하지 않았기에 옛날 한양에서도 아는 사람만 진가를 아는 음식이었다. 관련된 이야기가 조선 중기, 성현의 '용재총화'에 나온다.

성현의 친구 중에 김간이 절에서 책을 읽는데 어느 날 밥상에 낯선 반찬이 올랐다. 너무 맛있어 스님에게 물으니 전라도에서만 나오는 매생이라고 했다. 난생 처음 매생이를 먹어 본 김간이 성현 집에 놀라갔다가 절에서 먹었던 낯선 음식을 떠올리며 혹시 매생이를 먹어 봤냐며 천하의 진미라고 자랑했다. 이 말을 들은 성현이 순진한 친구를 골탕 먹일 방법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한심하다는 듯 아직까지도 매생이를 몰랐냐며 임금님 수랏상에만 올라가는 반찬으로 궁궐 밖 사람들은 쉽게 맛볼 수 없는 음식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친구가 그렇게 매생이 맛에 반했다니 기꺼이 매생이를 구해다 주겠다며 몰래 하인을 시켜 숭례문(남대문) 밖 연못에서 이끼를 떠오도록 했다. 그리고 술상을 차려 내오며 성현 자신의 앞에는 매생이를 놓고, 친구 앞에는 연못에서 건져 올린 이끼를 차려놓아 순진한 친구를 골탕 먹였다.

매생이국은 팔팔 끓여도 얼핏 보기에 전혀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때문에 자칫 잘못 먹으면 입천장 데이기 일쑤여서 지금은 장모님이 밉살스런 사위를 골탕 먹였던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친구 골탕 먹이는 데도 활용됐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맛이 있어 앞뒤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먹었기에 생긴 일화일 것이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5	4		
8			3				7	
						3	5	
					8		1	7
	7	3				8	4	
4	8		6					
	6	5						
	3				2			4
		8	9		7		6	

	4		2	6				
	1	3	9					4
		5			1			
	3		7			8		
		7				3		
		8			2		7	
			8			4		
2					7	5	8	
				1	4		2	

스도쿠 정답

3	2	6	7	9	5	4	8	1
8	5	4	3	1	6	9	7	2
7	1	9	2	8	4	3	5	6
5	9	2	4	3	8	6	1	7
6	7	3	5	2	1	8	4	9
4	8	1	6	7	9	2	3	5
9	6	5	1	4	3	7	2	8
1	3	7	8	6	2	5	9	4
2	4	8	9	5	7	1	6	3

7	4	9	2	6	3	1	5	8
8	1	3	9	7	5	2	6	4
6	2	5	4	8	1	7	9	3
4	3	2	7	9	6	8	1	5
9	6	7	1	5	8	3	4	2
1	5	8	3	4	2	6	7	9
5	7	1	8	2	9	4	3	6
2	9	4	6	3	7	5	8	1
3	8	6	5	1	4	9	2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제 월급으로 가족 부양… 생활 빠듯
자력 극복하고 장사 기법 관심둬라

Q 여자 85년 3월 25일 음력 16시 5분 (평달)

안녕하세요. 선생님...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들 때 선생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현재는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힘이 듭니다. 저는 회사의 사무직에 일하고 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여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고, 계속 어머니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벌어도 제자리이고, 너무 힘이 들고 속상합니다. 저의 사주와 올해 금전 운과 사업 운에 대해 선생님의 소중한 말씀 들으면 힘을 얻어 더 희망적이게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A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이나 절망도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를 상담할 때 희망을 주기도하고 실망이나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희망은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게으르게도 합니다. 양쇠음성(陽衰陰盛)이라 하여 부모나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주로 자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복을 전하는 사주입니다. 부모님입장에서는 자식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과 뜻이 안 맞고 돈이 모아지지 않겠으나 자력으로 일어나야하는 것이 본인의 운명이니 불평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발전되는 사람 즉 싹수가 있는 사람은 상사의 전달에 일단은 실행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시정하여 일을 마칩니다. 운이 없거나 하류 인생들은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는 것을 시키기만 한다고 불평하며 상대방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만 많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상사나 동료를 모함까지 하기도 합니다. 귀하는 어느 쪽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자력으로 살아가야하니 힘을 모으세요. 2017년까지는 무엇이든 창업은 실패의 연속이니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직업이 역마의 기운에 있으니 일단 영어를 열심히 배우십시오. 2016년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장사하는 직장으로 들어가서 장사의 기법을 익히도록 하십시오. 스트레스로 버는 족족 돈을 소비하게 된다면 미래는 없는 것이니 늘 상담하면서 한 단계씩 발전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9일 (음 12월 10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모든 걸 잊고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60년생** 부탁을 들어주면 당장은 좋으나 후회하게 됩니다. **72년생** 근거 없는 믿음보다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84년생** 기회가 왔습니다.

49년생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61년생** 일이 꼬이는 하루입니다. **73년생** 힘들어도 낙심말고 천천히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85년생** 불필요한 약속은 뒤로 미루세요.

50년생 외출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62년생** 다툼이나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74년생** 오해가 큰 싸움이 될 수 있어요. **86년생** 엎지러진 물은 빨리 잊는게 좋습니다.

51년생 일이 뜻대로 안되더라도 당당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3년생** 거래할 일이 있다면 동료의 도움을~. **75년생** 사소한 실수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87년생** 기회가 찾아올 때 나서세요.

52년생 빠른 거래보다는 한번 더 생각하세요. **64년생** 약속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76년생** 주변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88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53년생 애정운은 좋지만 금전운은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외출이나 여행보다는 집에 있는게 좋습니다. **77년생** 지나간 일에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89년생** 순탄한 하루이지만 주변의 유혹 조심하세요.

54년생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 의견을 들으세요. **66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지만 실망은 금물. **78년생** 일이 잘 되지만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90년생** 망설임보다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해요.

55년생 주변과 오해가 있다면 빨리 푸세요. **67년생** 거래나 문서에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79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 청하세요. **91년생** 연인이나 친구와 다툼수가 있으니 조금씩 양보하세요.

58년생 친구와 만나 회포를 푸세요. **68년생** 오늘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접촉은 피하세요. **80년생**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2년생** 낯선 이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57년생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69년생** 방향을 바꾸지 말고 계획대로 하세요. **81년생**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93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새로운 시작 필요!

58년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살피는 것입니다. **70년생** 새로운 사람을 만날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82년생** 손해를 감수하면 더 큰 이득이 생깁니다. **94년생** 생각보다는 하나씩 실천하는게 필요.

59년생 욕심을 버리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71년생** 인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마세요. **83년생** 마음이 피곤하니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세요. **95년생** 일이 꼬이더라도 느긋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무 감축량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요청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그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또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도 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 제도는 할당 대상 업체의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불법 의약품 발 못붙이게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점을 감안해 국제 기준 조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제조단계에서의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 위·변조와 불법 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할 방침이다. 올해 122개소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54개소를 평가하고 향후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또 의약품 제조소와 제품을 연계한 통합적 감시망을 운영해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의 수거·검사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에 대한 근절 방안도 추진된다. 약국·도매상 전산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변조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의 전 취급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더욱이 식약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 안전지킴이를 120여 명까지 확대한다.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과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해 제조소 실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 기준 등 각 분야에 맞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제약업계와 지자체 등을 통해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9일과 30일 전남 여수시 소재 디오션리조트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에는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우리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황우여 "취업 중심으로 교육제도 재조정"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취업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낮 대전시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4년 행복교육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외국의 취업문화를 언급하며 "우리도 이제는 취업을 중심으로 교육제도와 테마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는 직장에 맞는 공부를 하고 사회 전체가 낭비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어디에 취직할지 모르니까 백화점식으로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또 황 부총리는 "우리는 사실 인문학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하면 취업하고 나서 하겠다고 취직을 먼저 얘기한다"며 "'선취업 후진학'을 사회의 기본으로 바꿔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황 부총리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초·중·고등학생의 자살이 매년 꾸준히 줄었지만 작년에도 118건 발생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두 자릿수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총리는 교육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질문에 "교육 예산은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황재용기자

드디어 졸업이다! 28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해사대 졸업생들이 모자를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해사대 남학생들은 병역특례로 졸업 후 1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해 이 대학 졸업식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연합뉴스

인사

■ 법제처
◇과장급 전보 ▲ 행정법제국 박종구
■ 전력거래소
◇ 승진 ▲ 계통운영처장 송광헌
◇ 보직이동 ▲ 미래전략처장 양성배 ▲ 경영지원처장 조영태 ▲ 감사실장 양재석 ▲ 종합조정실장 박종인 ▲ 제주지사장 오세일 ▲ 중부지사장 김명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 ▲ 경영지원처장 기노선 ▲ 유통조성처장 송기복 ▲ 식량관리처장 유병렬 ▲ 감사실장 이관
<2급 승진> ▲ 기획예산부장 김창국 ▲ 융자관리부장 문병필 ▲ 시장지원부장 윤도언 ▲ 품질안전부장 상병하 ▲ 식량지원부장 김기붕 ▲ 곡물관리T/F팀장 김상백 ▲ 중국수출부장 전기찬 ▲ 식품수출부장 정연수 ▲ 수산수출부장 구자성 ▲ 해외마케팅부장 노태학 ▲ 사이버거래소 마케팅부장 박장희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김문규 ▲ 분화부장 노윤희
<처·실장급 전보> ▲ 기획실장 김형목 ▲ 재무관리처장 이호선 ▲ 수급관리처장 김달룡 ▲ 국영무역처장 오정규 ▲ 수출전략처장 오형완 ▲ 식품산업처장 조해영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 신장현 ▲ aT센터장 조익춘 ▲ 화훼공판장장 권오엽 ▲ 사이버거래소장 김장래 ▲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최병옥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최근원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성창현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성진 ▲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유성
<부장급 전보> ▲ CS경영부장 최주환 ▲ 경영평가부장 고동호 ▲ 인사부장 김정욱 ▲ 시설관리부장 권홍 ▲ 회계관리부장 김민수 ▲ 법무지역T/F팀장 직무대리 전대영 ▲ 산지지원부장 김호동 ▲ 수급사업부장 서병교 ▲ 유통정보부장 박연호 ▲ 수출기획부장 한병희 ▲ 수출정보부장 강계원 ▲ FTA지원부장 배민식 ▲ 식품기획부장 장시현 ▲ 정보서비스부장 민경한 ▲ 전시지원부장 김병원 ▲ Agro-ValleyT/F팀장 양인규 ▲ 소상공인지원부장 신익섭 ▲ 교육운영부장 김동묵 ▲ 유통연구소장 배상원 ▲ 농식품유통교육원 연구원 현성기 ▲ 화훼공판장 관리부장 고광삼 ▲ 절화부장 직무대리 권영규 ▲ 청렴혁신부장 장인식 ▲ 감사부장 한순철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민경후 ▲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신형민 ▲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차흥식 ▲ 인천지역본부장 이한준 ▲ 강원지역본부장 이영철 ▲ 충북지역본부장 오종영
■ 씨앤앰
◇ 전무 승진 ▲ 재경부문장(CFO) 김덕일 ▲ 전략기획실장 한상진
◇ 이사 승진 ▲ 동부사업본부장 임해동
■ 서울신용보증재단
◇ 1·2급
▲ 중부지역본부장 엄창석 ▲ 동부지역본부장 강진우 ▲ 남부지역본부장 신용호 ▲ 감사실장 조재목 ▲ 전략기획실장 권영호 ▲ 인재개발부장 박대원 ▲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 보증지원부장 박창원 ▲ 회생지원부장 박창진 ▲ 기업진흥실장 전승기 ▲ 마포지점장 김정길 ▲ 종로지점장 윤여원 ▲ 은평지점장 김태웅 ▲ 성수지점장 정동욱 ▲ 중랑지점장 이준식 ▲ 도봉지점장 황종대 ▲ 강서지점장 박장혁 ▲ 금천지점장 구자견 ▲ 송파지점장 왕인석 ▲ 강동지점장 김재진 ▲ 사당지점장 주승휴
■ 동아대학교
▲ 한림생활관장 서정창 ▲ 사무처장 홍기섭 ▲ 총무과장 김수녕 ▲ 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장 정혜선 ▲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이희숙 ▲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건강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겸무) 신동욱 ▲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장 박진호 ▲ 의과대학 행정지원실장 최해대 ▲ 학술정보지원과장 홍금주 ▲ 학술정보서비스2과장 김종필

부고

▲ 한은섭씨 별세, 규선(한국증권금융 상근감사위원)·순옥·순성·순영씨 부친상, 윤석두·양상열씨 장인상 = 2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30일. 02-3410-3151~3

▲ 정대옥 씨 별세, 정혁조(부산 사상구청 산업경제계장) 정숙자(부산 강서우체국 근무)씨 부친상 = 28일 오전 6시 45분,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63-351-8050

▲이전의 씨 별세, 윤종화(경기방송 기자)씨 모친상 = 28일 오전 3시 40분, 수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31-249-8463

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경찰 "정신 이상 있지만 면책 수준 아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폭파 협박 피의자를 상대로 이틀째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최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용의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우울 및 관계 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고 비논리적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안전 이상 무! 국민안전처 조송래(왼쪽) 중앙소방본부장이 28일 전남 여수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해 소방정 대비태세를 점검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사진)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광고를 TV와 라디오에 내보냈다.

그런데 이씨는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유선준기자

현대차 노조, 29일 항소장 제출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회사 측도 노조의 항소 방침이 결정되자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황기태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통상임금 1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명의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과는 별개로 선진임금체계 노사위원회에서 오는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선준기자

모친 살해 후 방화 혐의 탈영범 검거

편의점서 체크카드 사용… 군헌병대에 덜미

최근 도봉구 방학동 화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 여성의 아들이 군헌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28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군헌병대 군무이탈 체포조는 이날 새벽 0시 5분께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지하상가 벤치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탈영병 강모(21) 일병을 붙잡았다.

군헌병대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강남역 인근 편의점에서 강 일병이 음료수를 산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 위치를 특정해 강 일병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6시 58분께 도봉구 방학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 이모(54·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골절이었으며, 불은 이미 이씨가 숨진 뒤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 강 일병이 화재 직전인 22일 오후 6시 40분께 집에 있었고, 화재 직후인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께 집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강 일병은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건 당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복귀하지 않아 탈영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군헌병대가 강 일병을 검거함에 따라 앞으로 살해 혐의 등은 군헌병대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군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성관계 동영상 미끼 30억 요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금융그룹

은퇴진단은
토끼처럼 빠르게!

자산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점검해주는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 모두의 은퇴 파트너 **KB골든라이프**

-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해 노후를 설계합니다
- **KB골든라이프 특화영업점**
  전국 55개 특화영업점의 노후설계 Master가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KB골든라이프 Day, 아카데미,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를 전합니다
-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준비하는 『KB골든라이프 예금/적금』에서
  편안한 은퇴생활을 위한 『KB연금우대통장』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